

# '94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심사발표

본 협회와 건설부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21세기 신건축문화창달을 위한 국내최대 규모의 건축문화행사인 「'94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심사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우리 협회가 개최해온 「한국 건축전」과 지난 92년부터 서울경제신문사와 건설부가 공동개최해 온 「한국건축문화 대상」을 통합, 개최하게 된 「'94한국건축문화대상」은 '환경과 조화, 인간중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국내건축계에서 활동중인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는 물론 우리 건축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인과 학생이 참가하였다. 총 81개 작품이 출품된 준공건축물 부문에서는 대상 1점과 본상 4점 등 28개 작품을 수상하기로 하였으며, 계획 건축물부문에서는 신인부분 15점과 학생부분 12점이 출품되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및 우수상, 장려상, 입선을 각각 선정하였다.

## 준공건축물 부문

### 1. 작품접수 현황(81점)

- 비주거/68점
- 주 거/13점

### 2. 심사일시

- 1차심사(사진첨심사) / '94. 9. 5
- 2차심사(현장심사) / '94. 9. 9~9. 16

### 3. 심사위원 명단

- 위원장/이명호(대한건축학회 회장)
- 위 원/강석원(그룹가건축 대표)  
김광욱(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김희수(93년도 대상수상자)  
윤승중(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이상순(롯데건설 사장)  
임영숙(서울신문 논설위원)  
조창환(경희대 부총장)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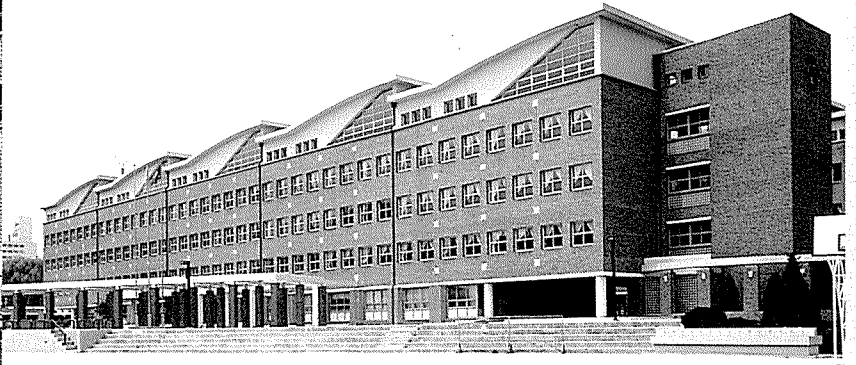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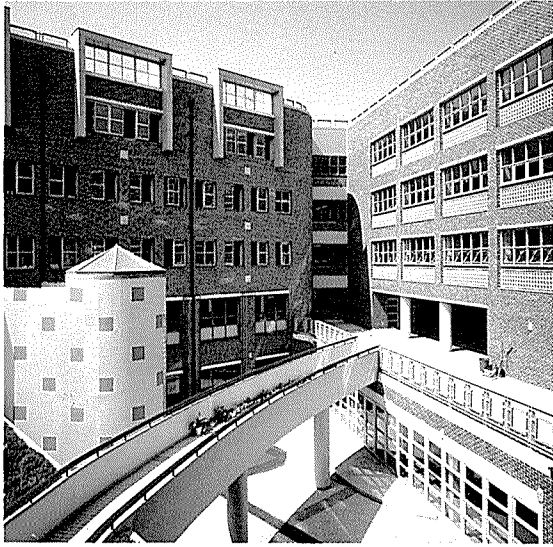
### 4. 전시기간 및 장소

- 기간/10. 6(목)~10. 20(목)
- 장소/현대주택문화센터

### 5. 수상작 현황

시상명	건축물명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대상	민정학원	(주)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문정일	쌍용건설(주)	학교법인 민정학원
본상	비주거	아주대학교병원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대우 학교법인 대우학원
		애담교회	(주)정림건축 김경철	(주)프린스건설 애담교회
	SBS등촌동 Studio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최관영+경동명	(주)태영	(주)서울방송
주거	포이탑 빌라	한·공간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현대산업개발(주)	이종무+변재덕
	EXPO A.P.T	(주)아키텐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우성	대우, 롯데, 삼성, 선경	대우, 롯데, 삼성, 선경
우수상(설계)	전쟁기념관	현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동아건설산업(주)	국방부장관
		이성관+곽홍길		

시상명	건축물명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입선	국제신문사 사옥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이용홍	롯데건설(주)	국제신문
	대우건설기술연구소 연구관리동	(주)대우건설엔지니어링본부 이항섭	(주)대우	대우건설기술연구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주)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장석웅	한진건설(주)	인천직할시
	풀리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김인철	진명종합개발(주)	김광선, 김영중
	이문 291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승효상	(주)신원산업	김기혁
	명보 프라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기반 김석철	삼성중공업(주)	명보프라자
	연세 세브란스빌딩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송기덕	(주)대우	연세재단
	서울대 박물관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현대산업개발(주)	서울대학교
	대한투자신탁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	동부건설(주)	대한투자신탁(주)
	동양증권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상무, 김경수, 박 승	삼성건설(주)	동양증권(주)
	용두리주택	메타건축 이종호+양남철	허 정	박영춘
	분당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환경동인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의식	현대건설(주)	현대건설(주)
	사파정동 주민회관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진·미래 허정도	중앙토건(주)	창원시
	해태사옥	정원종합건축사사무소 임용택	해태제과건설사업부	해태제과(주)
	초동교회 안성수양관	(주)예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영경	서준허우경	초동교회
	'93대전 EXPO소제관	(주)세마종합건축사사무소 심성보+박경수	거양개발(주)	포항제철
	곤지암컨트리클럽	(주)원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충언, 김광섭	력키개발(주)	희성관광개발(주)
	영동 제일병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승효상	진덕산업(주)	노성일
	EXPO '93우주 탐사관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창수+박 승+현상목	삼성건설(주)	삼성전자
	서강대 대산관	(주)전아건축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부대진	현대건설(주)	서강대학교
증권감독원	(주)정림건축	동부건설(주)	증권감독원	



준공건축물부문 대상/민정학원(본지 9월호 참조)

## 계획 건축물 부문(신인·학생)

1. 작품접수현황(142점)
  - 신인/15점
  - 학생/127점
2. 심사일시
  - '94. 9. 7
3. 심사위원명단
  - 위원장/최광영(일건건축대표)
  - 위 원/김광현(서울대건축공학과 교수)  
김택성(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김상경(예전건축대표)  
민현식(민현식건축 대표)  
이정근(우리계 획건축대표)  
최영집(답건축대표)  
(가나다순)
4. 전시기간 및 장소
  - 기간/10. 6(목)~10. 20(목)
  - 장소/현대주택문화센터
5. 수상작 현황

### 신인부문

구 분	작 품 명	성 명	소 속
최우수상	Station-도심가로변 소규모 건축	정기훈, 고해경	경원대 대학원 건축학과
우수 상	봄·여름·가을·겨울	최봉성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인
장 리 상	소유하는 공간 존재하는 공간	서현철, 양승중	(주)임·이종합건축사사무소
	Symbiosis(공생)-근린공원시설 Complex	박운중	한양대 대학원 건축학과
	Art Complex	김윤정, 황길순	정일엔지니어링·무원건축
입 선	국립중앙 박물관	심재근	(주)임·이종합건축사사무소
	Urban Trace (지역민+여행자를 위한 도시안내관)	서석원, 강형찬	(주)신동아건축, 아키안
	기억(서대문 형무소 기념관)	이재영, 이경선	건축사사무소 아르텍
	From stack to stackless library	남상환	부산대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기억에 대한 현상적 의미	홍성용, 박영철	큐빅 디자인연구소

### 학생부문

구 분	작 품 명	성 명	소 속
최우수상	Hybrid Metropolitan Infrastructure	김덕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rchitecture Sub.
	우수 상	Time-Museum of Contemporary art	김남훈
장 리 상	清·美	조영선, 황창석	홍익대 건축학과
	우리마을	한지형, 최유중	중앙대 건축공학과
	파출소는...전사된다	김창균, 노재만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응용과학 기술센터	신진섭, 박희락	충남대 건축공학과
	Park·Parking·People·	김재정, 조성범	충남대 건축공학과
	A Place for Connection	최재성, 김진주	부산공업대 건축과
	지역문화 교류센터	변상규, 김인복	청주대 건축공학과
	From here to there	류정희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존재방식-건축전시장, 설계사무실, 주거	김충렬, 성기수	목원대 건축학과
	Consideration of History	김양섭, 강민성	목포대 건축학과
	흔적	민지승, 김윤모	목포대 건축공학과
	우리의 삶은...	정승운, 박근철	건국대 건축공학과
시·도건축 사회장상	서울 Node in Road	한훈기	명지대 건축공학
	부산 Identity Crisis -인사동 계획	백수영, 장명희	부산공업대 건축공학과
	광주 Gap·Time·Memory (도심의 기억력 생성을 위한 장치)	박 호, 박계록	광주대 건축학과
	대전 삶의 공존	장세균, 김문광	충남대 건축공학과
	충북 한울타리	김동식, 김종익	청주대 건축공학과
	충북 Linear Configuration	김성수, 우영선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입 선	적은 이야기	문병인, 박건기	숭실대 건축공학과
	B 612(아이들의 성)	천 보, 신상우	홍익대 건축공학과
	Open School	이종규, 이동규	연세대 건축공학과
	한강다리공원 계획안	권경태	부산공업대 건축공학과
	존재의 위치적 중요성, 복합 주민시설	김인환, 박극자	동의대 건축공학과
	Revival	엄진용	충북대 건축공학과
	Rendezvous a city	박상훈, 조해원	충북대 건축공학과
	(셋집 딸린 도시형 주택) 미당	남승희, 김연수	목원대 건축학과
	어떤제안(소규모 파출소 계획안)	이병규, 송연호	청주대 건축공학과
	流...人		



준공건축물부문 본상/예담교회(본지 9월호 참조)



준공건축물부문 본상/포이탑빌라(본지 8월호 참조)

## 심사평

### ■ 준공건축물부문/총평

李明浩/대한건축학회장

준공부분에 대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한해 동안의 건축 창작활동을 총결산하는 중요한 시상이므로 심사에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모든 입선작은 사진첩에 의해 1,2차에 걸쳐서 선정되었고, 입선작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현장 심사를 실시하였다. 주거부분의 응모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작품내용에 있어서도 돋보이는 특징을 찾기가 어려워 입선작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반면, 비주거부분에서는 건물의 용도, 기능, 스케일 그리고 조형표현 등이 다양하고 전반적으로 작품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는데 크게 고심하였다. 따라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된 작품이 적지 않았다. 응모작품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설정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인간중시 및 환경과의 조화구현, 건축문화창달 및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창작의욕의 고취라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기능과 예술성에 대한 충실성, 독창적인 새로운 이미지추구 그리고 앞으로의 건축작품행위에 귀감이 될 작품성을 내포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본상이상의 수상작품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동시에 수상되는 것이므로 현장심사를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현장심사에서는 이를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가 삼위일체가 되어 창의성있는 미래지향적 건축물을 탄생시키는데 기여한 협동적 노력의 척도를 가능하는데 비교적 큰 비중을 두었고 전반적으로 계획의 부합성, 미적 완성도, 시공상태, 기능 및 구조의 합리성, 하이테크의 도입의욕 그리고 지역기여도 및 주변과의 조화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사진첩에 의한 1,2차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작품이 현장심사에서 평가절하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대상 및 본상의 수상작은 심사위원 상호간의 토론으로 결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주거부분만 토론으로 결정되고 비주거부분에서는 심사의견의 자유로운 개진을 통해서 심도깊은 토론을 전개하였지만 중국에는 표

결로 결정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각 수상작에 대한 심사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작품인 민정학원(상명 초·중·고교)은 종래의 고착적이고 진부한 학교건축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교육적 분위기를 고취할 수 있는 공간환경과 형태 및 색채의 조화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학교 건축계획의 참신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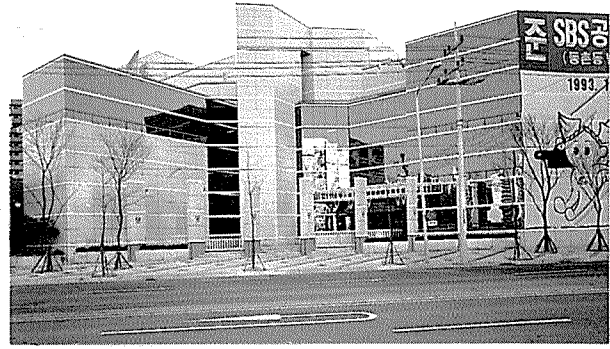
대지가 비교적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실군, 특별교실군, 체육관, 수영장, 급식시설 등 필요교육기능을 이상적인 적정규모로 조합시켜 내외부공간의 원활한 연계와 지하층의 적절한 선근처리로 효율적인 Block계획과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특히 국민학교의 열린 교육방식을 건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였다. 시공에 있어서도 고도의 Workmanship을 발휘하여 깊은 부분까지 정교한 시공기술을 운용함으로써 학교건축으로서의 질을 한층 높이 올려놓으려는 노력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민정학원재단측은 설계진과 함께 외국의 학교건축전문교수진과 2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갖는 등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장을 창출하기 위한 의욕을 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비의 투자에도 관심을 보인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민정학원은 학교건축의 선도적 창의성을 내포하고 있고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삼위일체적 협동작의 표본이라고 평가되었다. 다만, 옥외운동장의 규모가 협소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 ■ 본상 작품

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은 병원구성요소의 Zoning계획과 동선체계가 교육기능과 진료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병원관리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계획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Space Program과 진료시설계획이 합치되고 있으며, 적절한 시설 투자와 정교한 시공기술을 구사하는 등 대학부속병원으로서의 효시적 모범을 부여하는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현관과 외래접수대기홀을 재래의 One Room 형태와 달리 분리시킴으로써 동선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주요설비공간 및 수직동선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유지관리 및 에너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영안예식부를 별도로 독립시키는 등 기능적인 간결한 동선계획이 우수하였다. 다만 건물의 외형이 안정감이 있는 반면에 다소 단조로운감을 주었으며 병동부에서는 직



준공건축물부문 본상/이주대병원



준공건축물부문 본상/SBS등촌동 공개홀(본지 9월호 참조)

선형의 긴복도로 인해 소음장애가 따를 우려가 있고 NS, STATION 및 코어부분에 자연채광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2) 예배교회는 산기슭의 높은 위치, 경사진 구분도로, 부정형의 협소한 대지형태 등 입지조건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낮은 담의 안뜰과 옥외계단의 매개공간을 통해 다단식으로 교회에 접근시키는 외부동선 처리가 인상적이었다. 대예배공간의 부채꼴 평면과 설교단 상부의 음폐된 고축창식 채광도입으로 설교단을 향한 집중력을 유도하고 성가대석을 1개층 높게 위치시킨 예배공간의 구성은 시각적, 음향적, 심리적으로 조화된 일체감을 갖게 하는 발전적 계획수법이었다고 평가되었다. 외관조형에서 곡면지붕에 처마, 공포, 기둥의 현대감각적 표현이 높게 평가되었다.

3) SBS등촌동 공개홀은 가로변 좁은 대지에 대형 스튜디오 공간을 끼어넣기 위해 공간축을 대각방향으로 설정하고 도로변 정면에 자연스럽게 생긴 삼각형 공간을 앞마당으로 해서 Pylon으로 도로공간과 구획시킨 것은 가로접촉면 외부공간의 계획수법으로 받아들여기에 충분하였다. 외관은 면과 선의 조화로 단정함과 경쾌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잔잔한 변화와 흥미를 표출하므로써 흔히 가로접촉면 건축이 안고있는 경직성을 탈피하는 독특한 조형디테일을 구사한 것이 높이 평가 되었다. 다만 내부 공간에서 당초의 대형 업무공간을 소형공간으로 구획한 것은 기본계획단계에서 프로그래밍상 혼선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4) 포이 탑빌라는 소도로변의 작은대지를 아담한 소규모 집합주택으로 발전시키는 계획개념이 높이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계획개념은 국토이용면에서나 도시 주거수요문제 해결상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포이 탑빌라는 앞뜰과 뒷뜰공간으로 구분되고 앞뜰은 독립주거의 정원과 같이 그리고 뒷뜰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겸한 서비스공간으로 계획되어 외부공간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각 주호의 현관은 코어내의 옥내정원을 중심으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어 주호간 프라이버시가 양호하며 특히 천장으로부터 사입되는 자연광을 받는 옥내정원의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다만 외장재로 쓰인 드라이비트마감재의 질적향상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우수상인 대전 EXPO아파트는 넓은 인동간격을 확보한 여유있는 배치계획, 가로동선 및 주동접근로 처리 그리고

주동의 정면성을 살린 조형수법 등에서는 높이 평가되었으나 당초 설계와 달리 단지 전체적으로 모든 주동을 17층으로 통일시키므로써 스카이라인의 단조로움을 야기하였고, 단지내 중심광장의 이미지가 집중력과 구심력을 발휘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심사를 통해서 건축창작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다 같이 건축의 문화적 가치창출에 적극 호응, 참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한편 앞으로 건축문화에 대한 범국가적 의식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사인 주거부분의 질적, 양적향상이 절실한 과제라고 인식되었으며, 아울러 앞으로 비주거부분의 심사를 보다 간결하게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용도기능별로 분류하여 입상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 ■ 계획건축물 부문 / 총평

崔寬泳/일건종합건축사 사무소

근대건축 이후 오늘의 세계적 건축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하이테크 등 다양한 건축이념들로 인하여 혼돈화된 양상을 띄고 있으며 다시 근대건축(Mordemism)이 재해석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 따라서 표현 또한 다양하고 적극적이다.

우리의 건축교육 현황은 양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학과와 수는 무려 110여 개나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동안 건축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 양질의 설계인력은 모자라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럴것이라는 예견을 하게 된다.

더욱이 세계는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첨예한 국제적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우리의 건축설계도 이것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오히려 우리의 건축설계제도 장차 세계속으로 진출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이다.

차체에 민간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와 정부의 한 부서인 건설부와 언론사인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본 『한국 건축 문화대상』이라는 Title로 건축공모전을 하는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EXPO 아파트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전쟁기념관(본지 7월호 참조)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좋은 건축을 위한 힘을 결집하고, 좀더 뚜렷한 미래지향적 건축방향을 모색하며 양질의 건축설계 인력을 배양하며, 학교교육에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좋은 건축을 낳게하여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번 건축전중에 심사대상이었던 학생부문에 127점이라는 많은 작품이 제출되었는데 비하여 신인 부문에는 불과 15점이 제출되었다.

신인들은 현업에 종사하느라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임을 이해하면서도 다소 섭섭함을 떨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견에서는 학생작품 보다 외형적으로는 덜 적극적인 제작양상을 보고 순간 놀랐으나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상대적으로 좀더 확실한 내용을 담고 현실성이 있는 테마를 택하고 있음이 확연히 구분되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심사방향에 대한 심사위원들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얻어진 키워드(Key Word)들은 도시적 맥락(Context)의 이해속에 건축계획적 성격이 강한 것, 참신하고 창의적인 것, 충실하고 정통적인 표현기법, 뚜렷한 의도에 의한 진지한 디자인 등이었으며, 이러한 키워드(Key Word)들은 바로 심사기준으로 연결 되어졌다. 이렇게 하여 좀 허황되거나 내용이 불충실하거나 건축적이지 못했거나 도시적 맥락의 이해가 없는 것이나 전혀 교과서적인 표현을 무시한 작품들은 입선작에서 제외되었다.

전반적으로 작품에 대한 정열이 높게 평가되었고 조형의 지가 강하게 돋보였으며, 결과 또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대지에 대한 적용성이 부족하고 건축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논리가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의 진지한 해석이 부족했다.

학생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은 작품은 도시적 해석과 조형 그리고 충실하고 정통적 표현방법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대지가 미국의 한 도시내에 있었고 작가 또한 미국에 유학중인 학생이었음이 의외의 일이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건축 문화대상』이라는 타이틀에 비추어 최고상으로 결정하는데 대한 다소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계 어느곳에서 건축공부를 하든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쉽게 합의를 보았고,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우리의 건축학도들이 이러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폭넓게 학생들

상호간에 발전적인 자극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좋은 작품과 올바른 표현방법은 좋게 평가받는 공정한 심사의 예를 남기는 보람을 각 심사위원들은 함께 느꼈음을 기억한다.

끝으로 신인들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들어 실제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을 생각하여 표현방법이 양적인 것이나 외형적인 것 보다는 내용의 충실성을 읽을 수 있는 쪽으로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고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 계획건축물 부문 / 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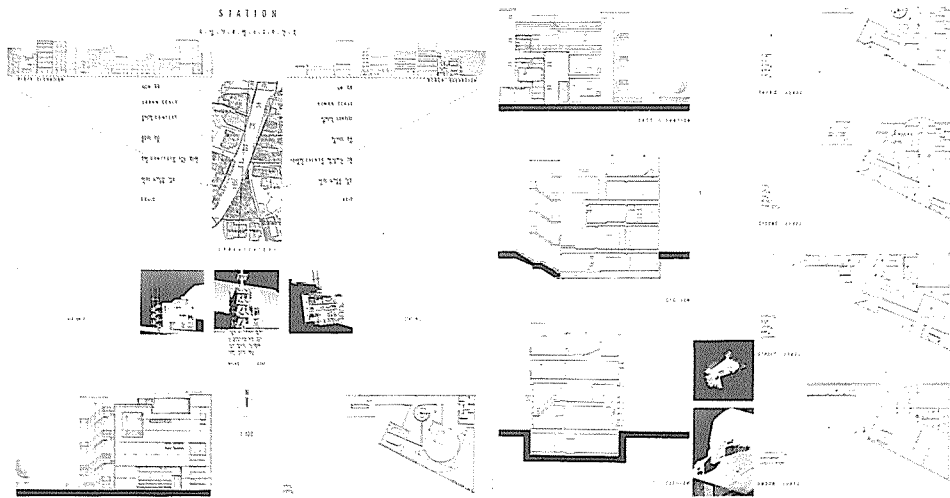
李廷根/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올해는 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건축공모전의 성격이 바뀌었다. 주제를 미리 제시하던 방식이 없어지고 서울경제신문사 건설부가 공동주최하던 한국건축문화대상이사협회의 한국 건축전과 통합 운영되게 되었다. 공모시기도 봄에서 가을로 옮겨졌다.

공모전 담당자들은 출품자 수의 작품의 질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였다. 두 공모전을 통합하는 절차상 공고기간이 짧았고 공모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더구나 올해는 건축사 시험에 응시자가 많아서 신인부분의 공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공모시기가 건축가 협회 주최의 건축대전과 겹치는 것도 출품자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된다.

7명의 심사위원들이 공동으로 아쉬워하는 점은 공모의 주제가 없어진 점이다. 하나의 주제를 걸고 작품을 하는 것이 건축사협회 작품공모전의 특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특징이 없어져버린 것이다. 앞으로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인것 같다. 주제가 없다는 것은 출품자 쪽에서는 스스로 주제를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출품자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자 쪽에서는 객관적인 가늠의 척도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모형식에 있어 주제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점은 심사의 어려움이나 출품자의 작품제작 과정의 어려움을 떠나서 작품 공모를 통해서 우리의 건축문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느냐하는 공모전의 기본목표에 깊이 연루된 문제이다. 예를



계획건축물부문 신인 최우수상

들면 신춘문예나 순수 미술전에서 작가에게 주제를 맡기는 것은 작가자신이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모든 속박을 풀어 놓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도가 건축 공모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간에 공통으로 이해되고 적용되는 문법이라는 공동의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건축에 있어 과연 작가와 이를 사용하는 일반인들 사이에 넓은 의미에 있어서 언어에서처럼 이해되고 수용하며 통화가 가능한 공동의 문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시각적인 면에서는 공감대를 끌어내는 영역을 어느 정도 가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기능 및 환경적인 측면과 이것에 기술적인 매체성을 더한다면 작가들이 각자 임의로 설정한 주제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들을 건축적인 사고와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건축공간의 구성방법이나 구성문법을 추구함에 있어 반드시 지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거나 쓰여지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하는가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각자의 관점에 맡겨질 문제이다. 실용성이나 실현성이 작품의 전제조건으로 추구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추상적인 목표는 반드시 건축적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도 그 작품의 추구는 건축적 사고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잇는 작업이어야 하고, 건축적 실천면에 있어 우리의 삶의 공간에 대한 투철한 이해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작품이 현실적이고 구상적인 주제설정과 구성방법을 택하였어도 주제를 추구해 들어가는 목표와 주제설정의 뿌리가 되는 문제의식은 전자와 다를 바 없다. 단지 건축작품을 추구해 가는 방법의 선택이 다를 뿐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공모전의 주제를 미리 설정한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준비기간을 가지고 여러형식의 대화를 통해 공동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건축적 현실의 문제점을 첨예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출품희망자들이 정해진 주제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작품을 구상해가는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이해는 깊이를 더해 가리라고 예상된다. 출품자들과 발제에 참여한 건축인 공동체 및 심사자들과 그리고 관람자 등 모두는 공동의 주제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건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공동의 건축적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주제의 설정은 건축 커뮤니티의 더 많은 성원이 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공동

의 범위와 틀안에서 서로간의 대화가 잘 되도록 대화의 효율성을 높혀준다.

만약 건축공모전의 최선의 목표가 조금이라도 건축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이는 건축공동체의 구성원들간에 그리고 일반 대중사이에 건축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쪽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축공모전들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투철한 문제의식이 결여되고 있고 주제설정의 방만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우려는 본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인부문에서도 불식되지 않았다. 설정한 주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설정한 문제의 건축적 해결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해내는 것이 작품제작의 모체이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한 주제의 초점이 흐리면 건축적인 해법의 제시가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현란한 표현기법은 허구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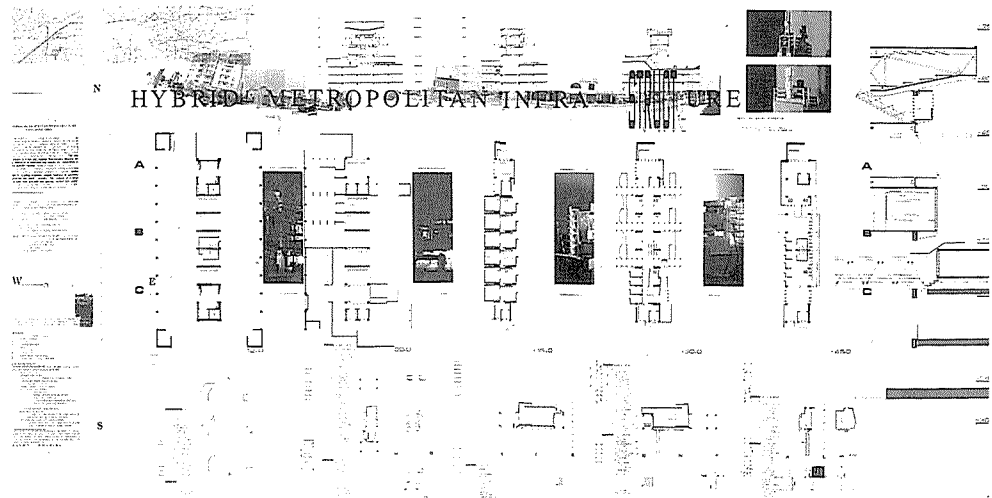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심가로변 소규모 건축'은 비교적 설계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주제였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 무얼 하고자 하는지 간명하게 드러낸 점이 앞섰다. 이 작품에서 더 바라고 싶은 점은 남대문로의 실제적인 한 필지를 택했다면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법상의 제 조건에 대한 건축적 대응도 풀어야 할 문제중의 하나로 취급했어야 했다. 좀 더 나아가 도시건축으로서의 가로변 소규모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일반해의 암시가 있었으면 한다.

우수상을 수상한 '봄/여름/가을/겨울'도 주제가 비교적 명확한 작품이었다. 주거의 물리적인 장치들을 계절적인 자연의 변화에 어떻게 변용 적용하여 안락한 삶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탐구였다. 재미있는 주제였으며 작가에게 더 요구하고 싶은 점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주거에 대한 해결에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 주거전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 쪽으로 승화시켰으면 하는 것이다.

장려상을 수상한 3개의 작품중 '소유하는 공간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소감만 피력하고자 한다.

건축대학 계획안인 이 작품은 왜 이렇게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건축적인 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입선작 5개 작품중에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계획안이었다. 작품에 쏟아부은 정열이나 에너지에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에 대한 열정과 의욕은 도시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계획건축물부문 학생 최우수상

계획 작품이 실현되었을 때의 환경적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배려와 비전을 갖추지 않았을 때 전문가적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견해함으로써 견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작품이었다. 작가 자신은 물론 건축인 모두가 심려해야 하는 점이라 생각된다.

특히 근래에까지 건축공모전마다 그 전반적인 경향은 문제 의식에 근거한 주제의 끈질긴 추구보다는 허황된 열정의 과도한 발산에 중점이 두어지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절제되지 않은 광기는 창조에 기여할 수 없다. 균형있는 리비도의 건축적 발산은 문화의 가면을 쓴 동물적 권력에의 의지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 건축공모전이 건축인 공동체 및 대중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건축환경과 생활공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매체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입상자 및 출품자 모두에게 이러한 노력에 기여한 점에 대해 경하하여 마지 않는다.

여러 단계에서 주최하는 건축공모전의 수가 많아지고 시기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 공모전마다 뚜렷한 특성을 가진 행사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공모전이 되었을 때 건축공모전은 건축공동체에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우리의 건축문화발전에 상승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 계획건축물 부문 / 학생

金相景/예전종합건축사 사무소

'94 한국건축문화대상의 학생부문에 제출한 많은 작품들을 여러 심사위원들과 공동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제출된 작품의 주제를 크게 나누어보면, 도시가로의 건축, 우리의 일상적인 거주생활을 담은 공동주거, 지역문화 공간 등, 비교적 현실적이고 다양한 주제들을 유감없이 펼친 흥미로운 작품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미국에서 수학중인 학생의 작품인 「HYBRID METROPOLITAN INFRASTRUCTURE」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미국 대도시의 가로의 택지를 지하에서 지상까지 각 Level 마다 변화 있는 기능과 효율적인 공간, 그리고 도

시와 어울리는 형태를 창조하여, 조직적이며 아름답게 구성하고 표현한 우수한 작품이다. 역시 도시환경이란 자연환경과는 달리 조직성과 질서라는 틀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우수작으로 「TIME-MUSEUM OF CONTEMPORARY ART」와 「淸·美」란 작품이 선정되었다. 두 작품 모두 미술관 계획안으로 학생들이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비교적 정교하고 세련된 공간과 형태를 제안한 우수작들이다. 전자는 우리 전통공간 개념을 미술관에 적용시켜 내부와 외부공간의 교차와 변화를 다양하게 시도한 점이 돋보였다.

「淸·美」도 비슷한 예로서 용산가족공원의 자연환경과 조화시키면서 미술관 기능을 대지에 어울리게 전개하여 역시 균형있고 세련된 공간과 형태를 만들어낸 우수작이다.

그 외에 수상한 많은 작품들도 나름대로 솜씨를 발휘하여 정성들여 만들어낸 우수작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상작품에 선정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품에 대한 결과의 차이는 다소 미미한 것 같으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튼, 열심히 자기 전공분야인 건축설계에 정진하며 전력투구하는 젊은 건축학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전반적인 작품의 경향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은 사회에 절실하게 호소할 만한 좀더 현실적인 주제를 좋은 아이디어와 조화시켜 얼마나 구체화시켰는지의 과정의 표현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단순한 결과물의 집착보다는 왜 이렇게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설계과정에 대한 표현과 이해가 더 있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건축은 결코 단숨에 화려하게 결정되어지는 일이 아니며, 주어진 건축주와 그의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그리고 주어진 대지조건을 밀도있게 조화시키는 일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생건축전은 우리사회에 절실한 몇 가지 주제와 대지상황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각자가 선택하여 제안하는 형식이 오히려 내용있는 전시회가 되리라 본다. 이러한 과정이 학교의 설계 교육의 내용에서 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것이 건축교육 방향의 모색이 되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부디 건축 설계에 대한 꿈과 희망을 오래도록 간직하여 앞으로 전개되어질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람있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구체화 작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의 구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훈련을 경험하면서 성장하여 우리 건축문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주기 바란다.